



주간 관세무역정보

vol.1969

2022.1.3.

2022 신년호 vol.1969

이주의 초점 | 미리 보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

관세 동향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관세인재개발원' 명칭 변경 등 조직개편 단행

법령 정보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Contents



04

이주의 초점

- 미리 보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

13

수출입동향

- 선용품 공급, 올해부터 '수출실적'으로 인정
- 중소기업 수출 호조 지속 위한 수출 지원사업 2,510억원 지원
- 올 1분기, 수출 호조세 지속으로 순조로운 출발
- 베트남産 요소, 3년간 최대 36만톤 수입 MOU 체결
- KOTRA, RCEP 발효 앞두고 호주에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08

관세동향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명칭 변경 등 조직개편 단행
→ 관세인재개발원
- 이차·연료전지 및 소·부·장 원재료 등 90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 명단 공개

18

물류동향

- 약 7조원 규모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알립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본사가 아래 주소로 이전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7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우 : 07788)



19

관세행정실무해설

관세평가실무

- 해외 임가공물품 수입 시 임가공비와 왕복운임
과세 여부에 대한 답변 사례

관세행정안내

- 일반특혜제도 적용 및 실무 해설

질의응답사례

- 수경재배기의 품목분류 등

33

판례동향

관세판례해설

-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입의 주체에 관한 판례 해설

조세심판결정례

- 쟁점물품을 '남성용'으로 보아 제620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여성용'으로 보아
제6202호로 분류할지

47

품목분류동향

세번 바로잡기

- 코로나 검체 채취용 키트

상식 밖의 상품학

- 타조알 마스크

51

최신개정법령

법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대통령령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 개정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 개정 (외)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외)

고시

- 「간이정액환급률표」 일부 개정 (외)

공고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외)

입법안예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외)

87

게시판

인사 | 단신

미리 보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

임인년, 호랑이처럼 포효하느냐 vs 고양이 울음에 그치느냐
정부, '경제성장률 3.1%' 전망 ... 관건은 '수출 지원정책'에 달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검은 호랑이의 해'다. 호랑이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물이다. <단군신화>에도 호랑이가 등장하고, 한반도의 형상을 호랑이의 모습에 비견하기도 한다.

<조선왕조실록>에도 호랑이가 727차례나 나오고, <은혜 깊은 호랑이>, <해님 달님>처럼 호랑이가 등장하는 옛날이야기만 60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호랑이의 용맹한 기상은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이를 헤쳐나가는 정신적 원동력이 돼주곤 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2022년을 맞아 내심 이 검은 호랑이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우리 경제도 정상궤도에 올려주길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는데,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등 5가지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했는데, 이들 정책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올해 다시 한번 지난해와 같은 역대급 수출실적을 기록해줘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 무역 규모 1조 3,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260조원이 넘는 수출금융 지원과 현장 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총력 지원체제 지속 가동

먼저 물류난이 개선될 때까지 주요 항로(미주·유럽 등)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 화주를 대상으로 전용 선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임시선박을 월 6척 이상 투입하고 있으며, 1,300TEU 규모의 중소 화주 전용 선복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물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선박 투입 및 선복량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지속하며(170억원), 물류 피해 특별지원 대출(한국수출입은행, 1,500억원), 무역보험·보증우대(한국무역보험공사) 등 특별금융 지원도 올 상반기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또 항만 처리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 2월까지 부산항 신항에 수출화물 임시보관 장소를 확충하고, 올 6월엔 신규 터미널도 개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류 적체 해소를 위한 ▲신속통관(수출기업 희망 장소에서 검사, 우수업체 수출검사 생략), ▲선적 지연에 따른 불이익 방지(적재 이행기간 연장신청 자동 승인, 수출신고 취하 시 행정제재 면제), ▲세정 지원(납기 연장, 분할납부 지원, 수출용 원재료 당일 환급) 등 수출기업 관세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 수출 개선 모멘텀 지속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모색

수출금융엔 중소·중견기업 및 신산업 분야 수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5조 4,000억 원 늘린 261조 2,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올해 국내 실정을 반영한 '한국형 해운운임지수'를 개발·공표해 해상 운송계약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해운운임 변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한국형 해운운임지수 기반 파생상품거래 도입 등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선정한 321개 '수출 두드림 기업(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컨설팅·자금·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KOTRA는 수출 전문위원 멘토링, 해외 무역관을 통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 바우처 우선 선정, 온라인 수출 지원사업 참여 우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지원 및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연계,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수출 유망 소상공인 보증 지원(보증한도 및 비율 우대, 보증심사 완화)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딸기·포도·김 등 농·수산물 전용 항공기 선복(적재공간)을 제공하고, 해외 수요가 높은 전통·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현지화(비건 제품 개발 등 상품 다양화, 라벨링 및 포장 디자인 개선, 해외인증 취득 지원 등)를 지원한다.

또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해 패키지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팜 수출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유망국에 국산 시스템 및 기술 확산을 위한 시범 온실을 조성하고, 현지 농업인 등 대상 작물재배, 스마트팜 운영법 등의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기업인 출입국 지원이 지속되도록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격리면제 절차 간소화, 백신 접종자 PCR 의무검사 횟수(최대 4회) 축소 등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과 연계한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제협력에 기반한 수출 저변 확대

정부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분야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태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CPTPP

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남방·중남미·중동 등과 신규 FTA 체결 및 발효에 속도를 내고, 올 2월 발효되는 RCEP을 계기로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제조만으로 국내산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은 원산지소명서와 입증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거점 국가와의 양자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신규 FTA 체결·발효 예정(요약) ●

구분	내용
신남방	한·캄보디아 FTA 발효, 한·필리핀 FTA 서명 등
중남미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진전 등
중동	한·UAE CEPA 협상 개시, 한·GCC FTA 협상 재개, 한·이스라엘 FTA 발효 등

■ 국제개발 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통해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갖는 기후변화, 팬데믹 대응 분야 등 지원을 확대하고, 대형 인프라 사업 발굴에도 힘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제개발기구와 연계해 개도국의 국가질병관리시스템(백신 생산·전달 인프라 등 포함) 구축을 중점 지원하며, 우리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인도 반드라 공공 지구 개발 사업, 이집트 룩소르-하이담 철도 현대화 사업 등 신흥시장 랜드마크형 인프라 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최근 개발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도국 민간사업 지원 및 대외 인프라 협력 등을 위해 선진 금융기법 활용 등 개발금융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정상 경로로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며, 3.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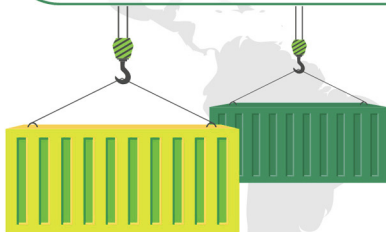
우리 경제가 잠시나마 코로나19 충격을 빚겨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수출 덕분이었다. 올해도 코로나19와의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믿을 건 수출뿐이다. 2020년이 그랬듯, 2021년이 그랬듯, 2022년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2022년의 대한민국이 포효하는 호랑이가 될지, 우는 고양이로 전락할지는 코로나19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어떤 지원정책들을 펼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 정영선 기자 |

국제협력 확대

- ▶ CPTPP 가입 추진을 위한 소통 강화
- ▶ 신남방·중남미·중동 등과 신규 FTA 체결·발효 가속화
- ▶ RCEP 발효('22.2월~) 등 계기,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서류제출 간소화
- ▶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등 거점국가 양자협력 강화



다각적 수출 지원

- ▶ 수출금융 261조원 공급('21년대비 +5조원)
- ▶ '한국형 해운운임지수' 개발
- ▶ 321개 '수출 두드림 기업' 대상 컨설팅·자금·마케팅 등 지원
- ▶ 관계기관 합동 스마트팜 수출지원팀 구성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총력 지원

선적공간 확보

- ▶ 미주·유럽 항로 임시선박 투입
- ▶ 중소화주 대상 전용선복 제공

물류비 부담 완화

- ▶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전용 수출바우처(170억원)
- ▶ 물류피해 특별대출, 무역보험·보증 우대 등 특화 금융지원 지속

장기계약 활성화

- ▶ 장기운송계약 체결지원 사업
美 서안항로(300TEU/항차) 대상 지속 운영
- ▶ 민간 주도 장기계약 중개 모델 도입 검토
- ▶ 계약이행 보증상품 개발 검토, 우수포워더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인프라 보강

- ▶ 부산항 신항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 확충, 신규 터미널 적기 개장
- ▶ 해외공동물류센터(3개소) 구축, 해상운송-현지 내륙운송 연계 지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관세인재개발원’ 명칭 변경 등 조직개편 단행

‘세관비즈니스센터 → 지원센터’ 변경 … 인사업무는 ‘운영지원과’로 이관



관세청 신규 직원 육성 및 세관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관세인재개발원’이라는 새 이름표를 달고 관세청 인재 육성에 나선다.

관세청은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 및 본청 일부 부서의 기능 조정 등의 내용은 담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먼저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을 각각 ‘관세인재개발원’과 ‘지원센터’로 변경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 명칭에 ‘인재개발’을 넣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기관의 기능을 기존의 교육훈련(Training)에서 적극적인 인재양성(Human Resources Development)으로 폭넓게 확대해 관세청 재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미래 관세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계관세기구(WCO)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로서 외국관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 관세행정 기법을 전수하는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선 세관 소속기관인 ‘세관비즈니스센터’는 항만 감시 및 수출입통관 지원 등 종합적인 역할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기존 ‘부평세관 비즈니스센터’를 ‘안산세관 부평지원센터’로 바꾸는 식이다.

한편 소속기관 명칭 변경과 함께 본청의 인사 기능과 기획조정관 소속 부서의 기능도 조정·개편했다.

본청 인사 기능의 독립성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적기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했다.

또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하던 성과관리, 규제개혁 및 혁신 업무를 통합해 신설된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일원화했고, 기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법무 전담부서로 개편해 법제·소송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고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 국민과 함께하는 관세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영선 기자 |

이차·연료전지 및 소·부·장 원재료 등 90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조정관세 적용 품목·세율은 지난해와 동일

올해부터 이차·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과 소재·부품·장비 관련 원재료 등 9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적용). 반면 냉동 명태,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조정관세(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 부과)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년 할당·조정관세 운용 계획’을 발표하며,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인 탄력관세는 산업경쟁력 제고와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올리는 조정관세로 나뉜다.

정부는 올해 9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14개 품목엔 조정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2012년(103개) 이래 10년 만에 최다 규모다.

2022년도 할당관세 운용 계획

중소기업과 신성장 산업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초원재료, 농·수산물 등의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90개 물품을 지원한다.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탄소섬유 와인더(탄소섬유의 껍임이나 접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글게 말거나 감는 장비), ▲리뉴어블 납사(폐식용유, 동식물성 유지 등을 원재료로 생산된 바이오 재생원료) 등 15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이차전지 제조용 전기히터 등 8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및 FTA 활용 등으로 지원 실익이 미미해 제외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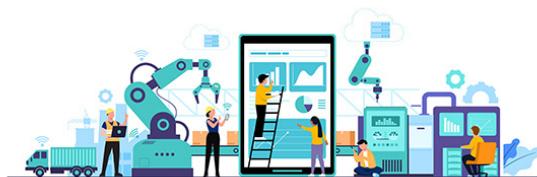
부문별로 살펴보면, 이차·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원재료·설비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도 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초 원재료에 대한 가격 안정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철강 부원료 등은 기존 10개 품목(코크스, 페로니오븀, 페로실리콘, 티타늄 괴, 니켈 괴, 탄소전극 등)을 계속 지원하고, 마그네슘 괴를 새로 추가했다.

아울러 저탄소 산업 전환 등을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용 촉매의 지원을 확대하고, 리뉴어블 납사, 폐인쇄회로기판 2개 품목을 새



로 지원한다.

원유(나프타 및 LPG·LNG 제조용), LPG·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한편 농·어가 지원 및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한다.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밀기울을 새로 지원하고, 사료용 옥수수·근채류 등에 대한 할당세율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등으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계란 관련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계속된다(신선란 기준 월 1억개 규모 할당관세 인하, 8~30% → 0%).

국제 원당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국내 설탕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확대(10만톤 → 10만 5,000톤)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석유화학·섬유 등 11개 품목(폴리에틸렌, 분산성염료, 순면사, 면사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참고로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는 既 적용 중)에,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2022년도 조정관세 운용 계획

정부는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 물품 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조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을 결정했다.

활동·활농어(기본세율 10% → 조정세율 28%), 고추장(기본 8% → 조정 32%), 찐쌀(기본 8% → 조정 50%), 표고버섯(기본 30% → 조정 40%) 등 13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며,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 정영선 기자 |

● 2022년도 조정관세 적용 물품 및 관세율 ●

적용기간	조정관세 품목 및 관세율(기본세율 → 조정세율, %)	
2022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 (14개)	찐쌀(8 → 50) 혼합조미료(8 → 45) 고추장(8 → 32) 당면(8 → 26) 활동(10 → 28) 활농어(10 → 28) 활범장어(10 → 20)	냉동 콩치(10 → 24) 냉동 명태(10 → 22) 냉동 오징어(10/20* → 22) 새우젓(20 → 32) 표고버섯(30 → 40) 합판(8 → 10) 나프타(0 → 0.5)**

* 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속·로리고종·노토토다루스속·세피오투디스속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 나프타에는 천연가스액(Natural Gas Liquid)도 포함

● 2022년도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관세율 ●

적용기간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관세율(기본세율 → 할당세율, %)	
2022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82개)	<신성장 분야(18개)> 흑연 화합물(8 → 0) 전극(8 → 0) 리튬코발트 산화물(8 → 0) 리튬니켈코발트 망간 산화물(8 → 0) 전해액(8 → 0) 리튬니켈코발트 알루미늄 산화물(8 → 0) 아세틸렌 블랙(8 → 0) 구리박(8 → 0) 황산 코발트(5 → 0) 테트라에틸암모늄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8 → 0) NCM 전구체(8 → 0) 소성로(8 → 0) 분리판(8 → 0) 전극막 접합체(8 → 0) 백금 촉매(8 → 0) 석영 유리기판(3 → 0) 연신기(8 → 0) 성장호르몬 치료제 부분품(8 → 0)	페로니오븀(3 → 0) 티타늄 과(2 → 0.5) 귀금속 잔재물(2 → 0) 니켈 과(3 → 1) 페인쇄회로기판(3 → 0) 마그네슘 과(3 → 1) 플라티늄(3 → 0) 팔라듐(3 → 0) 로듐(3 → 0) 리뉴어블 납사(5 → 0)
	<소재·부품·장비 분야(14개)> 흡착제(8 → 0) 인조흑연(4 → 0) PE 격리막(4 → 0) 파우치(8 → 0) PVDF 바인더(8 → 0) 초고온 탄화로(8 → 0) 이온교환막(8 → 0) 이오노머 분산액(8 → 0) XDA(8 → 0) 실리콘 메탈(5 → 0) 탄소섬유초치 성형품(8 → 0) 폴리머 배합용 원료(8 → 0) 탄화로(8 → 0) 탄소섬유 와인더(8 → 0)	<농축수산업 분야(20개)> 유장(20/40 → 0) 매니옥 펠릿(7 → 0) 겔보리(5 → 0) 귀리(3 → 0) 옥수수(사료용)(3 → 0) 옥수수(가공용)(3 → 0) 밀기울(2 → 0) 대두(3 → 0) 대두박(1.8 → 0) 알팔파(1 → 0) 비트펠릿(5 → 0) 부리채소류(5/20 → 0) 동·식물성 유지(5 → 0) 면실피(5 → 0) 유조제품(5 → 0) 매니옥 칩(20 → 10) 새끼배장어(5 → 3) 설탕(30 → 5) 농약원제(2/8 → 0) 요소(비료용)(2 → 0)
	<기초 원재료 분야(19개)> 원유(나프타 제조용)(3 → 0.5) 원유(LPG 제조용)(3 → 2) LPG(3 → 2) 코크스(3 → 0) 페이스트(8 → 1) 탄소전극(5 → 1) 페로실리콘(2 → 0) 페로크로뮴(2 → 1) 페로니켈(3 → 1)	<중소기업 지원 분야(11개)> 분산성 염료(8 → 0) 생사(3/8 → 0) 면사(1 → 0) 순면사(8 → 4) 재생스테이플 섬유(1 → 0) 유연처리우피(3 → 1) 폴리에틸렌(8 → 0) 조영제 원료 중간체(8 → 0) 이산화티타늄(8 → 0) 폴리카보네이트(8 → 0) 폴리에틸렌(광학렌즈)(8 → 0)
2022년 1.1.부터 6.30.까지 적용(7개)	<계란 및 계란 가공품(7개)> 신선란(27 → 0) 난황분(27 → 0), 난황냉동(27 → 0)	전란분(27 → 0), 전란냉동(30 → 0) 난백분(8 → 0), 난백냉동(8 → 0)
동절기* (1개)	<기초 원재료 분야(1개)> LNG(3 → 2)	

* LNG 동절기 적용 : 2022.10.1.~12.31. / 밑줄은 신규 적용 물품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 명단 공개

관세청, 총 체납액 1조 29억원 … 포상금 지급률 상향 추진



개인 175명, 법인 86개사 등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자) 261명(社)의 명단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됐다.

관세청은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29억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483억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원, 1인 평균 체납액은 38억원이라고 지난해 12월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중 최초 명단 공개자는 21명(체납액 총 836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94억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원이었으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 최고액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신규

공개명단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특히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운영, 친인척 명의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률 상향(징수 금액의 15% → 20%)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영선 기자 |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전화 신고

- (국번 없이) 125
-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02-510-1332
-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 051-620-6391

■ 인터넷 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 우편(서면) 신고

-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48940)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선용품 공급, 올해부터 ‘수출실적’으로 인정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 1월 1일부터 시행



올 1월 1일부터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부품 등을 공급하는 선용품 공급

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선용품 공급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12월 29일 밝혔다.

세계 선용품 시장은 45조원 규모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매년 평균 9.7%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선용품 공급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선용품은 수출에 준해 세관장 허가를 받은 후 공급하고 있고, 외화획득 등 수출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선용품 공급업체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요청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개최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이를 반영해 이번에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화를 받고 외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올 1월 1일부터 바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실적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올 3월부터 발급한다.

참고로 선용품 공급업체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선용품 공급실적에 대해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급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600여개 선용품 공급업체들도 무역보험, 무역금융, 포상 등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의 혜택을 받고, 선용품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도 선용품 공급실적을 근거로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해수부는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과 함께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해 선용품 공급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선용품 전용 품목코드를 마련해 선용품 전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용품 통합 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이다.

| 하세은 기자 |

중소기업 수출 호조 지속 위한 수출 지원사업 2,510억원 지원

중기부, 2022년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27일 '2022년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출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해상·항공운임 지원과 구매자 연결을 위한 기반 구축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액이 201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였던 2018년의 1,052억 달러를 넘어서자 올해에도 이러한 수출 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년과 유사한 규모인 2,150억원을 수출 지원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중점 지원분야로 먼저 고운임 등 전 세계적 물류난이 지속됨에 따라 물류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물류 전용바우처를 최대 2,000만원 발급하고 그중 70%를 보조하기로 했으며, HMM과 협업을 통해 고정운임으로 장기운송계약을 지속 지원하며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특송운임 할인, 풀필먼트 서비스 보조 등 다방면으로 물류난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어 수출바우처의 지원규모도 지난해 1,604억원보다 늘어난 1,075억원을 지원하고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수출강소기업의 5개 트랙으로 통·폐합해 수출실적 단계별로 지원받는 기업 수도 늘렸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진출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글로벌 쇼핑몰 내 실시간방송 판매를 상시 운영하고,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케이(K)' 4기 제품을 110여개 추가 선정해 해외 판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홈쇼핑사와 협업으로 해외 홈쇼핑 진출 및 한류 연계 마케팅 제공 등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수출 마케팅도 확대 지원한다.

특히 수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구매자 발굴 등 해외시장 사전 입주제가 본격 도입돼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비용과 컨설팅을 지원받고 싶은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신청하거나, 수출바우처 내에서 '해외규격인증획득' 서비스 메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지난해 수출 신기록 달성 흐름이 올해도 지속 및 확대될 수 있도록 선도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물류애로 해소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올 1분기, 수출 호조세 지속으로 순조로운 출발

원재료 가격 및 물류비용 상승은 걸림돌로 작용



올 1분기 수출경기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인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가 일곱 분기 연속 올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 1/4분기 EBSI가 지난 분기(106.0)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115.7로 나타나 수출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1,26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2022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 전망조사’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도입에 따른 글로벌 수입 수요 증가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품목별로는 선박(150.0), 석유제품(144.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142.4) 등 주력 품목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화학공업제품(76.5), 농수산물(79.5), 가전제품(87.6)은 지난해 4분기 대비 수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학공업제품은 글로벌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과 더불어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자급률이 올라가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이중고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수출환경을 평가하는 10개 항목 중에서는 수출상담(116.8), 수출계약(112.8), 설비가동률(103.6) 등을 중심으로 수출환경이 좋

아질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도입 이후 글로벌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수출상품 제조원가(79.3), 국제수급상황(84.1), 수입규제·통상마찰(93.3)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컸다.

기업들이 올 1분기 수출 애로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항목은 원재료 가격 상승(26.1%), 물류비용 상승(25.8%)으로 지난해 4분기 전망 대비 각각 1.8p, 1.5%p 증가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고, 비철금속 종합 가격 지표인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올해 3분기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던 해상운임은 4분기 들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출에 지속적인 애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협회 도원빈 연구원은 “우리 수출이 내년에도 계속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채산성 악화, 높은 해상 운임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베트남産 요소

3년간 최대 36만톤 수입 MOU 체결

양국, 한·베트남 FTA 의류 원산지 기준 개정안 교환각서도 서명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연간 최대 12만톤의 베트남産 요소를 수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응우옌 산업무역부장관과 지난해 12월 22일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무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 자원, FTA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문승욱 산업부장관과 응우옌 산업무역부장관은 ‘한·베트남 요소공급협력 MOU’를 체결해 올해부터 향후 3년 동안 연간 최대 12만톤의 베트남産 요소가 한국에 도입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참고로 2020년 우리나라의 산업용 요소 수입량은 37만톤으로, 베트남에서 올해부터 수입되는 요소는 연간 수입량의 30%에 해당한다. 이에 중국에 의존했던 요소 수입선의 다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진행된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장관은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무역·산업·에너지 등 3개 분야에서 경험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무역 분야에선 지난해 9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23년 연간 교역액 1,000만 달러’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다변화와 비관

세장벽 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유통·물류 협력, 영국과 베트남 간 FTA 관련 한국産 직물의 원산지 누적 적용 추진,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민관 경제행사 개최 등이 거론됐다.

산업분야에서는 요소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GVC) 협력과 함께 섬유·의류·자동차 등 양국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는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애로 해소와 기술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공유 및 전력·에너지효율·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이 언급됐다.

또 한·베트남 FTA 경제협력사업과 무역기술장벽 해소,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 연계, 무역구제조치 등의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투자유보협상, 위생검역(SPS)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문 장관과 응우옌 장관은 ‘한·베트남 FTA 의류 원산지 기준 개정안 교환각서’에도 서명했다.

이는 기존에는 역내에서 재단·봉제된 의류에 대해서만 원산지 기준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재단·봉제 없이 편직만으로 제작된 의류도 원산지 기준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섬유·의류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하세은 기자 |

KOTRA, RCEP 발효 앞두고 호주에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국내 수출기업 및 호주 바이어 대상 컨설팅·통관애로 등 지원



KOTRA는 한·호주 수교 60주년 및 RCEP 발효(2022.2.1.)에 따른 한·호주 교역관계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호주 KOTRA 시드니무역관에 'FTA 해외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센터는 앞으로 발효 8년 차인 한·호주 FTA와 발효가 임박한 RCEP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수출기업과 호주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홍보·컨설팅·설명회·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 세관당국을 포함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FTA 현지 자문위원단 구성을 통

해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지 기업 밀집 지역과 주요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FTA 활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KOTRA는 2015년부터 중국·신남방·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FTA 해외 활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있다(9개국 15개소).

올해 안으로 일본·말레이시아 등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고, RCEP 활용 수요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신규 센터 추가 개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정영선 기자 |

● 국가별 FTA 활용지원센터 이용방법 ●

국가	지역	연락처
중국	베이징	(86-10) 6410-6162 / yimhongsil18@kotra.or.kr
	상하이	(86-21) 5108-8771 / crystal.lee@kotra.or.kr
	칭다오	(86-532) 8388-7931 / zhouchunja@kotra.or.kr
	광저우	(86-20) 2208-1610 / huizhen@kotra.or.kr
	다롄	(86-411) 8253-0051 / Alice717133@kotra.or.kr
ASEAN	하노이	(84-24) 3946-0511 / kty5714@kotra.or.kr
	호치민	(84-28) 3822-3944 / rainaju27@kotra.or.kr
	자카르타	(62-21) 574-1522 / anis@kotra.or.kr
	방콕	(66-2) 035-1555 / dana719176@kotra.or.kr
	마닐라	(63-2) 8894-4084 / thkim@kotra.or.kr
	프놈펜	(855-23) 999-099 / kotrapnh@kotra.or.kr
인도	뉴델리	(91-124) 4628-524 / yoons@kotra.or.kr
	첸나이	(91-44) 2499-7283 / d.shin@kotra.or.kr
중남미	멕시코시티	(52-55) 5514-3173 / syjeon11@kotra.or.kr
호주	시드니	(61-2) 8233-4050 / sungbin.kim@kotra.or.kr

약 7조원 규모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거점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개발사업’이 지난해 12월 28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연간 약 2,000TEU를 처리하는 세계 7위(환적 2위) 항만이지만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부산신항이 모두 개발돼도 컨테이너 부두가 부족할 수 있다는 예측과 함께 선박 대형화 및 항만 자동화 등 국제 추세도 부산항 신항 규모만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증가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비해 적기에 부두를 공급하고, 선박 대형화 추세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최첨단 스마트 자동화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항 진해신항은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기존 항만부두[수심 17m/350m(L)×600m(B)]에 비해 수심, 용량 등이 모두 커진 초대형 터미널[수심 23m/400m(L)×800m(B)]로 건설되며,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항만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2029년 3선석 우선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는 진해신항 1단계는 총 7조 9,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컨테이너 부두 9선석(2029년 3선석, 2032년 6선석), 방파제 1.4km, 호안 8.1km 등의 규모로 개발된다.

1단계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2032년에는 부산항에서 연간 3,200만TEU를 처리할 수 있으며, 부산항은 세계 물동량 순위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20년 세계 물동량 순위는 1위 상해항(4,350만TEU), 2위 싱가포르(3,687만TEU), 3위 Ningbo항(2,873만TEU)이다.

| 하세은 기자 |

●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계획 ●

구분		1단계	2단계	전체
총 사업비		7조 9,208억원 재정 2조 7,988억원 민자 5조 1,220억원	4조 7,283억원 재정 1조 2,641억원 민자 3조 4,642억원	12조 6,491억원 재정 4조 629억원 민자 8조 5,862억원
사업 내용	‘컨’ 부두	9선석 (3만TEU급×9)	6선석 (3만TEU급×5, 피더부두×1)	15선석 (3만TEU급×14, 피더부두×1)
	방파제	1.4km	0.8km	2.2km
	호안	8.08km	4.82km	12.9km
	배후단지	674천㎡	-	674천㎡
공급 시기	2029년까지	3선석	-	3선석
	2031년까지	6선석	-	6선석
	장래	-	6선석	6선석

壬寅年

